

# ‘제1호 전주시민서가’ 탄생

### 전주시, ‘향토사학자 신정일 이사장 서재’ 지정·업무협약...매월 1회 프로그램 운영

문화사학자이자 사단법인 우리당결기를 이끌고 있는 신정일 이사장의 서재가 전주시민들이 함께 지혜를 공유하는 ‘제1호 전주시민서’로 지정됐다.

전주시는 23일 덕진구 태진로에 위치한 신정일 이사장의 자택에서 운동 육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시민서가지기로 위촉된 신정일 이사장, 이형구 전 전주시인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호 전주시민서’ 지정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전주시민서’는 시가 추진 중인 책문화 가치 확산 프로젝트인 ‘함께라 서(書)’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시민 주도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공유 가능한 시민의 서가를 발굴해 전주시민서가로 지정 및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약식은 ‘제1호 전주시민서’가 지정을 통해 시민이 함께 만들고 나누는 ‘책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1호 전주시민서’로 지정된 신정일 이사장의 서가에는 3만여 권의 인문·역사 분야 장서가 소장돼 있다. 매월 1회 전주시민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며 협약 기간은 오는 2028년 2월까지 2년간이다.

협약 내용에 따라 신정일 이사장은 시민서가지로서 서가 개방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 장서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는 전주시민서가 현판 수여, 홍보 등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



문화사학자이자 사단법인 우리당결기를 이끌고 있는 신정일 이사장의 서재가 전주시민들이 함께 지혜를 공유하는 ‘제1호 전주시민서’로 지정됐다.

인 지원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전주시민서는 매월 1회 ‘서가지기 들려주는 서가 산책’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개방되며, 오는 31일에는 ‘전주 택리지(신 택리지 전주)’를 주제로 한 전주시민서 첫 개방 및 서가지기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도서관 누리집(www.jonju.go.kr)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제1호 전주시민서’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시민의 서가를 발굴·지정해 시민 참여형 지식 공유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개인의 서가를 공유·개방할 의향이 있는 시민은 전화(063-230-1809)로 문의하면 된다. 운동육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앞으로도 책을 매개로 지혜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민 중심의 독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저소득층 장애인 안전한 주거 환경 만든다

### 전주시,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

전주시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등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내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는 올해 총 41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1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중 가구 소득이 통계청 발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다.

주요 선정 기준인 2026년 기준 월 소득액은 △1인 가구 381만3363원 △2인 가구 586만16270원 △3인 가구 816만 8429원 △4인 가구 880만2202원 등이 다.

주요 지원 항목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 개선이다.

구체적으로 △주택 출입문·출입로 경사로 설치 및 보수 △안전 손잡이 설치 △욕실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출입문 손잡이 교체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자가 및 임차주택 모두 가능하며, 임차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권희성 기자

## 자원순환 ‘새활용 분야’ 기업 발굴·양성 나선다

###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31일까지 입주기업 공개 모집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은 오는 31일까지 센터에 입주해 재활용 문화 확산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버려진 자원에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새활용(업사이클링) 분야 기업을 발굴·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센터는 총 2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새활용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과 법인, 단체로 △버려진 소재나 제품을 디자인을 더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새활용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새활용 관련 사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등이다. 선정된 입주기업에게는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과 연계한 협력사업 지원과 교육·컨설팅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성장의 기회가 주어진다. 입주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우수 기업에 경우 연장 평가를 통해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입주할 수 있다. 신청은 전자우편(juach21@naver.com) 또는 우편·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이번 입주기업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누리집(www.juach.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231-6600~1)로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 소규모 행사~대형 축제까지 ‘촘촘한 안전망’ 구축

### 전주시, 합동점검 통해 안전사고 선제 차단·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계획 전 부서 시달

전주시는 이달부터 2026년 전주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지역축제·목외행사 안전 대비 태세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위험요소 데이터 기반 평가 환류 △유관기관 합동 현장 대응 강화 △목외행사 안전관리 강화의 3대 핵심 축을 바탕으로 더욱 철도같은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합동점검 지적 사항들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다음 행사 기획에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을 신설했다.

또한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이 모이는 목외행사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1일 전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례를 근거로 제도화해 안전의 빈틈을 메웠다.

이와 함께 기상 악화나 인파 과밀

시에는 즉각 현장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올해 대규모 축제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훨씬 이전부터 유관부서 간 치열한 ‘물밑 안전관리’를 거둬들여왔다.

세부적으로, 시는 개최 3주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인파·소방·전기·가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 보완을 요청하고, 개최 10일 전에는 안전관리위원회 대면 심의를 거쳐 계획의 적정성을 최종 확인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축제와 행사 개막 전부터 다층적인 검토·보완이 이뤄지고, 촘촘한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만큼 시민 등 방문객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내달 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청취

전주시는 오는 4월 6일까지 전주시역 총 3만6651호의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한 표준주택(2465호)을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 유지 및 주택 가격의 변동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안)으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정과, 동 주민센터에서 모두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시 세정과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가

격산정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검증을 진행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열람 대상인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제(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은 기한 내 열람 및 의견 청취 등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